

봉하마을 방문 대신 백신 협의...송영길 민주 대표 '파격 행보'

진선미 부동산 특위 위원장 교체 조선 의원들 혁명적인 조치 주문 장관·총리 청문회가 평가 가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가 통합을 고리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히는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당의 전면적인 쇄신 드라이브를 통해 부흥을 이룬 뒤, 정권재창출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당 내외에서는 송 대표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조만간 당내 갈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 대표는 지난 4일 당초 예정됐던 봉하마을 방문 일정을 미루고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관계 부처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백신 도입을 넘어 미국 백신 회사와 기술 협약을 통해 (국내에) 생산기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당이 주도적으로 백신 접종 문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오후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 관계자를 불러 주택정책 현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송 대표는 이날 진선미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부동산 특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과 1주택자를 위한 금융·세제 1차 보완책을 이날 중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용(LTV)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는 흐름이 다르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던 만큼 신중한 기초의 정부와 청와대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파격적 정책 대안이 제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 대표의 뒤는 행보로 임기 말 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키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3일에는 현충원을 참배,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보존 문제에 각

별한 관심을 드러낸 것도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들이 지난 4일 송영길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송 대표에게 민생 중심의 당 운영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 개혁 등을 주장하는 당내 주류세력들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이날 송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조선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사회적 불안정성, 삶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6명의 조선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금은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개혁은 내실 있게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한데 이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또 강성 친문 당원들의 '문자폭탄'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고 송 대표는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5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6~7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운영을 평가할 첫 가능성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의 도덕성 문제를 들어 벌써부터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29명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됐다는 점에서 민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 패싱'을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송 대표가 야당의 나막니 1순위로 타깃인 임 후보자를 포함해 일부 후보자에 대해 '음침마속'을 건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인사 문제에 실물 리 나섰다가는 임기말 국정 동력 약화의 요인을 제공하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걸린다. 또 당내 갈등과 당-정간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는 결국 민심의 흐름에 따라 당-정간에 원활한 소통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정간의 갈등은 결국 공멸이라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관악구 동명아동복지센터를 찾아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 비주류 전면 포진...사무총장 3선 윤관석 의원

대변인 이용빈·비서실장 김영호

지명 최고위원 호남출신 선출 관심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에 3선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대변인에는 초선인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한 명도 뽑히지 않은 만큼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 정치인이 선출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고용진

의원이 임명됐다. 앞서 대표 비서실장에는 재선 김영호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수석부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정부위원이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시 대변인을 지내는 등 송 대표와 오랜 인연을 이어왔으며 당 대표 경선에서도 송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당직 인선을 두고 계파색이 열린 비주류 출신 인사가 전면 포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둘러싸고 '최고위원의 색깔이 뚜렷해 비주류 중심

으로 선임했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재명계, 전혜숙 최고위원은 이낙연계로 분류된다.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최고위원은 친문 인사로 꼽힌다.

송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자리를 놓고 초·재선들을 상대로 청년·노동 및 최고위원을 추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지역 한 국회 의원은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도 배려를 하는 게 맞고 정가에서 이 지역의 몇몇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김영록 지사, 윤희중 민주 원내대표 만나 전남 현안 지원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윤희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 전남지역 핵심 현안 3건을 설명하고 당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핵심현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전라남도 국립과과대학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등이다.

김 지사는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시급한 만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과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곧 재개발의 정협체에서 국립과과대학 신설을 우선 논의해 전

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와 관련해 "여수는 2012 여수 세계엑스포 등을 통해 전 세계와 해양환경·기후 이슈를 공유한 상징적인 지역이고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할 최적지"라며 "영호남 화합을 도모하고 충분한 행사 준비를 위해 오는 11월 COP26 총회 전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국 12개 시·군으로 개최지를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건의에 대해 윤희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민생 개혁·변화의 정치 이끄는 안테나 되겠다"

이용빈 신임 민주당 대변인

"호남 목소리 반영에 힘 쓸 것"

"더불어민주당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힘차게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민심의 깊이와 향방을 짚어내서 민주당이 시민을 위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민심의 안테나가 되고, 지도부에 호남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송영길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용빈(광주 광산갑·사진) 신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송영길 당대표에게 '원팀 민주당' '당정정이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강조했다며 '위기의 시간을 헤쳐나가는데 다양성에 기반한 논의와 협력이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민심이 바라는 민생 개혁과 변화의 정치를 만들어 가고, 광주 출신 대변인으로서 호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4기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재보궐선거 때 풀려졌던 LH사태 등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K자형 양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부동산과 백신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당청간 협력이 노력하겠다"고 설



했다. 또 "민주당은 속의 의와 토론, 대화와 설득의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민심을 경청하며 중지를 모아가야 한다. 4기 민주당의 재창출을 위해 화합과 혁신의 길로 함께 나아가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올해는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하반기부터 본격 대선 시점이 시작된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열심히 뛰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선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